

화순군 “QR코드 찍고 방문 소감 남기세요”

현충 시설 8개소에 부착·운영 접근편의성·군민 참여도 높여

화순군은 관내 현충 시설에 대한 접근 편의성 증진 및 참여형 콘텐츠 활용으로 군민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현충 시설 8개소에 QR코드를 부착해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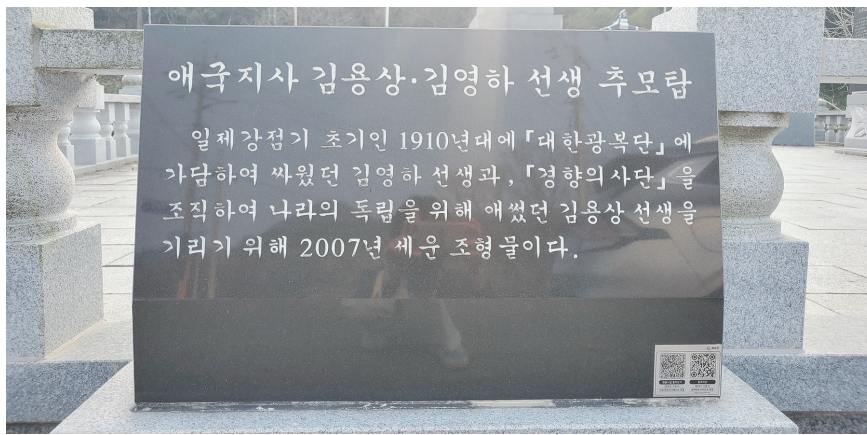
QR코드는 ‘현충 시설 둘러보기’와 ‘참여 마당’ 2가지로 제작됐다. 현충 시설에 직접 방문해 ‘현충 시설 둘러보기’ QR코드를 카메라로 인식하면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보서비스’ 사이트로 연결돼 해당 시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 마당’ QR코드를 인식하면 현충

시설 참여 마당 사이트로 연결되어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자유롭게 방문 소감을 남길 수 있다.

QR코드가 부착된 관내 지정 현충 시설은 △모암 장희수 애국지사 항일 기적비(도곡면 효산리 759-1) △순국경찰관 충훈불망비(화순읍 이십곡리 산4) △순국선열 규사 송주면 순절비(사평면 사평리 104-4) △위령비(동면 북암리 905-11) △지강 양한묵 선생 추모탑(화순읍 남산공원 내) △충의영당 및 춘산사(춘양면 부곡리 249) △충훈탑(화순읍 남산공원 내) △항일 애국지사 김용상·김영하 선생 추모탑(도암면 도장리 406-3) 등 8개소다.

화순군 사회복지과장은 “호국 역사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직접 소감도 남겨



화순군은 현충 시설 8개소에 QR코드를 부착했다. 화순군 도암면에 소재한 애국지사 김용상·김영하 선생 추모탑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부착돼 있다. 화순군 제공

보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한번 더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참여형 보훈 문화 확산

을 위해 노력하고 현충 시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화순군, 대중교통 노선 개편 수요응답형 버스 등 도입

화순군이 수요자 중심 대중교통 노선 개편에 나섰다.

26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교통 전문가, 화순군의회 의원, 운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버스의 이용 수효는 감소하는 반면, 인건비 및 유류비 등 운송 원가 증가로 운수업체 경영난에 따른 군 재정 지원 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기존의 대중교통 노선체계에서는 서비스 수준 개선에 한계가 있어 이용자 중심의 형평성에 맞는 신개념의 이동 수단(모빌리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되었다.

이날 보고회는 농어촌버스 현황과 현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노선 개편의 추진 방향 및 계획 설명, 화순군 맞춤형 교통체계 도입방안 안내, 참석자의 견정취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군은 지역 구조와 대중교통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고, 수요응답형 버스(DRT), 순환버스 등 시범운행을 통해 새로운 버스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노선 개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운수업체와 택시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 실현이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영광 신천리 신흥마을회관 준공 정주 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1일, 묘량면 신천리 신흥마을회관 신축 현장에서 내빈 및 지역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흥마을회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흥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만들기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기본계획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계획하여 우물정비, 산책로 및 주민쉼터, 마을회관을 조성했다.

신흥마을회관은 2022년 10월 착공을 시작으로 사업비 3억4000만원을 들여 지상 1층 경량철골 구조, 연면적 85.83㎡ 규모로 건립됐다.

마을회관 준공으로 묘량면 신천리 마을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통과 화합의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강종만 군수는 “정주 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절실히 원했던 신흥마을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결하였다는 것에 더욱 큰 의미가 있으며 복지향상 및 정이 더욱 넘치는 신흥마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

겨울 예술학교 참가자 모집 곡성군 갤러리 107

곡성군은 26일부터 2024년 1월5일까지 ‘갤러리 107, 겨울 예술학교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갤러리 107’의 문화예술 교육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와 예술적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예술학교 운영의 목적이다.

이번 예술학교는 2024년 1월8일부터 17일까지 곡성읍 중앙로에 위치한 ‘갤러리 107’에서 진행하며, 겨울 방학 동안 지역 청소년과 성인 등 2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 경험을 제공한다.

예술학교 참가자들은 자기 공예와 도자기 소품 만들기, 조각보 공예, 리본 공예 등 다양한 조형 활동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상상력을 펼치고, 완성된 결과물은 ‘갤러리 107’에 전시된다.

참가비는 무료로 각 프로그램당 1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접수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문화체육과 예술축제팀(061-360-84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대영 기자



함평군이 나산, 해보, 월야면 주민을 대상으로 월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운영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월야 건강증진형 보건소 운영 성료

나산·해보·월야면 주민 대상 치매·금연 등 건강 상담실 운영

함평군이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나산·해보·월야면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한 ‘월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을 최근 마쳤다.

26일 함평군에 따르면 2021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함평군이 선정됨에 따라 월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2022년 12월 이전신축하고 올해 2월부

터 본격 운영했다.

군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굿모닝 필라테스 △솔찬한 영양교실 △혈관팔팔 건강교실 △한의약 약선요리교실 △지역 총총 치매예방교실 △시니어건강노리터 교실 등 13개 사업을 222회 운영했다.

치매상담 487명, 금연상담 19명, 영양상담 124명 등 건강상담실을 운영했으며 180가구를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해 지역주민의 건강 지킴이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식습관개선 및 신체 활동 등 건강생활실천 인식개선이 향상되고 특히 치매 프로그램 참여자의 우울 척도에서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사업참여자 만족도가 100%를 달성해 올 한해 성공적인 운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주민 요구도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과 활력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담양군, 내년부터 50세 이상

담양군(군수 이병노)은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확대하며 민선 8기 공약인 향촌복지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국가무료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고가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해 경제적 부담 해소 및 대상포진 발병과 합병증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진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백신 비용의 50%(4만원)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만 50세 이상 주민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대상은 담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중 과거 접종 이력이 없는 만 50세 이상 주민이다. 접종 금기자 및 대상포진 접종력이 있는 자는 제외되며, 대상포진을 이미 앓은 경우는 회복 6~12개월 이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보건지소의 경우 지소별 진료일이 정해져 있어 사전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청 누리집(https://www.damyang.go.kr)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노 담양 군수는 “어르신들이 고향에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영광군, 단주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추가 모집

월평균 소득액 최대 150%로 인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총 71호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광단주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을 완화하여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세대는 26B형(전용면적 26.98㎡, 13평형) 고령자(주거약자용) 1호, 44형(전용면적 44.58㎡, 23평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0호로 총 71호이다.

이번 추가모집은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소득요건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최대 15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요건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자녀 연령은 6세 이하에서 9세 이하로 완화하여 모집한다.

이번 공급되는 영광단주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60% 정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하며 고령자(주거약자용)의 경우 최저 임대보증금 339만2000원에 임대료 월 14만1000원 수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경우 최저 임대보증금 636만원에 임대료 월 23만6000원 수준에 입주할 수 있다.

부대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공용세탁실, 작은도서관,

협동카페, 근린생활시설 등이 운영될 예정으로 높은 주거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접수는 2024년 1월5일부터 9일까지 누리집(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LH청약센터)로 신청 가능하며,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자에 한하여 1월9일 하루 현장 방문 접수(영광군청 별관, 구 영광읍사무소)할 계획이다.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누리집 ‘청약-임대주택-모집공고’에서 공고명을 ‘영광단주’로 검색하거나 영광군 누리집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